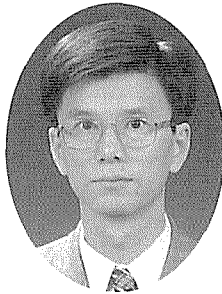


'97 정유사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강 신 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사무관 〉

1. '97년도 정유사 경영실적

'97년도 정유사의 매출액은 법인전체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26.3% 증가한 29조 4,264억원을 기록하여 1962년에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된 이후 34년만에 30조원에 가까운 외형적인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매출액의 대폭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전순이익은 전년대비 59.8% 감소한 1,183억원으로 집계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총매출액은 정제시설 증설이 완료되고 고도화시설 추가가동에 따라 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한데다가 환율 상승에 따른 국내유가의 급등 및 석유류 세금인상 등에 따라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반면, 순이익(세전)은 '97년 11월 이후 우리 경제를 강타한 외환·금융위기로 환율이 급상승하여 거액의 환차손과 금융비용이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됨으로써 양적 성장에 걸맞는 질적인 내실경영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7 정유사 경영실적

(단위 : 억원)

	1996	1997	증감율(%)
- 법인전체			
• 총매출액	232,934	294,264	26.3
• 세전순이익	2,940	1,183	△59.8
- 정유부문			
• 총매출액	215,485	272,159	26.3
• 세전순이익	314	△2,130	-

2. 경영실적 분석

'97년은 유가자유화의 원년으로 그간 정부규제하에서 제한된 이익을 추구해오던 정유사들로서는 본격적인 시장경쟁체제하에서의 적응가능성과 함께 자유화가 정유사 경영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된 한해였다.

사실 유가자유화 초기만 하더라도 그간 정부통제하에서 억제되어 왔던 원가 상승요인의 적기반영과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정유사 경영실적은 크게 호전된 추세를 나타내어 '97년 상반기 정유사 세전 순이익이 '96년 한해의 연간 순이익규모를 초과한 3,2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97년 하반기 이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강타한 금융시장의 불안이 급기야 원화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오므로써 막대한 환차손의 발생과 고금리 현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급증이 정유사 경영실적을 급속히 악화시키게 된 것이다.

정유사들은 사업특성상 대량의 원유를 들여오기 위해 통상 164일 정도의 외상수입을 하기 때문에 유전스 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97년에 발생한 유전스 환차손만 보더라도 약 3조원에 이르는 데다가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저하로 유전스금융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원유수입액 상당부분의 현금결제가 불가피하여 정유사 금융비용이 대폭 늘어난 것이 정유사 경영실적 악화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와 우리의 주수출무대인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기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및 석유화학부문 경기부진도 경영실적 악화에 일조하였다.

3. 정유사별 경영실적 및 향후전망

한편 정유사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SK(주)가 정유사에서는 최초로 매출액 1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현대정

유가 2년 연속 흑자를 시현하는 등 한화에너지를 제외한 4사가 흑자를 나타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순이익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정유사들이 회계방식 변경 등으로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매출액 이익률이 낮은 회사들은 사실상 적자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한화에너지의 경우 '95년 흑자를 시현한 이후 다시 58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쌍용정유는 수익구조가 수출중심인데다가 재무구조 양호로 금융비용이 적는데 힘입어 가장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정유사들의 수익구조는 IMF체제하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위기 등에 의한 석유제품 수출 감소로 '98년도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1/4분기중 석유제품 판매가 크게 감소한 관계로 '97년말에 발생한 환차손의 회수가 곤란해진 데다가 석유제품 수요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가격경쟁 등의 영향으로 정유사들의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유업계는 과거와 같은 외형위주의 경영전략을 탈퇴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출선 다변화 추진 등 질적인 내실경영을 이루어나가는 한편 외국 메이저와의 합작이나 투자유치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대외개방시대에 대비한 경쟁체질 함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정유5사 당기 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 법인전체	△475	440	1,038	1,555	3,463	2,941	1,183
- 정유부문	△1,259	△330	170	△620	△845	314	△2,130

정유5사 부채비율

(단위 : %)

	SK	LG	한화	쌍용	현대	평균
• 1997	497	535	3,270	379	992	569
• 1996	353	389	1,867	266	804	405

정유사의 경영실적 추이

(단위 : 억원)

		SK	LG	한화	쌍용	현대	계
매출액	1993	53,270	34,375	15,865	20,784	8,928	133,222
	1994	58,657	35,300	15,693	24,154	9,910	143,714
	1995	65,933	44,562	19,093	34,743	11,484	175,815
	1996	83,221	55,671	24,524	44,612	24,096	232,934
	1997	107,565	72,024	30,488	53,207	30,980	294,264
순이익	1993	354	670	△293	794	△486	1,038
	1994	530	824	△456	1,127	△470	1,555
	1995	1,032	1,575	107	1,197	△450	3,463
	1996	931	156	61	1,572	221	2,941
	1997	292	222	△582	1,138	113	1,183
주요사업부문		정유 석유화학 석유개발 운환(기)유 대체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운환유	정유 석유화학 발전 자원개발	정유 석유화학 운환(기)유	정유 석유화학	



통합재정수지 중앙정부의 모든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

중앙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총괄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차이. 여기에는 일반·특별회계 예산뿐 아니라 공공기금 등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또 철도 조달 양곡 통신 등 금융업이 아닌 4대 공기업의 지출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다 각종 기금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총 재정규모는 예산만 보아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활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통합재정수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79년부터 IMF 재정통계 작성기준에 따라 통합 재정수지가 파악되고 있다.

본래 통합재정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도 합쳐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예산통계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IMF기준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나라별로 비교할 수 있는데다 여기서기 흠어진 기금을 포함하므로 전체 재정을 파악할 수 있다.

통합재정을 통해 정부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의 건전성은 물론 예산지출 내용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